

《朴通事新註新譯(六)》*

李陸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 <朴通事新註新譯(五)>¹⁾의 후속 작업으로, 제41단락부터 제46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신기로 한다. 본 논문의 研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第41話

夜來着²⁾李三木匠家裏, 旋³⁾做一個櫃子, 說定與他二兩銀子。把來⁴⁾做的不成⁵⁾, 油的也不好, 板子又薄, 都是接頭補定⁶⁾麼⁷⁾, 多有節子⁸⁾。事件⁹⁾也不壯, 兩個鋸

* 이 연구는 201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1) 中國學論叢 第32輯(2011年), 第33輯(2011年), 第34輯(2012年), 第36輯(2012年), 第39輯(2013年).

2) 着: 在。《通制條格》卷七:「若有違限, 將首領官吏追呼決責, 不能着司理會公事。」(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441。)又, 關漢卿《金線池》三末白:「今日白白的吃他娘兒兩個一場欺負, 怎麼還在人頭上做人, 不如就着府堂觸階而死罷了!」(藍立裳,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406。)

3) 旋: 馬上, 隨即。《水滸傳》二六回:「(這婆娘)脫去了紅裙綉襖, 旋穿上孝裙孝衫。」吳士勛、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 頁1120)

4) 把來: (1) 拿來。《五色石》一卷:「一元極口贊嘆, 便把來念了又念, 牢牢記熟。」(吳士勛、王東明 主編, 同上揭書, 頁17。)(2) 直接用在動詞全面, 起介詞“把”的作用。《侁梅香》三【收尾】插白:「呀! 爭些兒把來忘了。」《千里獨行》三白:「馬不吃草, 都把來瘦了。」(劉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9。)按, 此作“拿來”。

5) 不成: 不成功, 沒辦成。(白維國 編, 《金瓶梅詞典》, 中華書局, 1991, 頁39。)

6) 補定: 亦作“補丁”, “補綻”。(1) 縫補。杜甫《北征》詩:「牀前兩小女, 綉綻纔過膝。」(2) 修補:

鉞兒¹⁰、一個了吊兒¹¹都不壯。一個薄薄的生活¹²，要做甚麼？那廝¹³不是人，誑¹⁴猾賊¹⁵，好生¹⁶捏拐¹⁷東西¹⁸。這櫃子多直一兩銀儘勾也！這廝落¹⁹了我一兩銀，我臨了²⁰吃²¹了他一道²²兒。我拿²³着這廝時，驢一般打。罷麼，相公²⁴，饒他麼。大人不見小人過。

彌補。宋·司馬光《太子太保龐公墓志銘》：「公至補綻茹漏，聚用增備，撫民以仁，馭軍以嚴。」按，此作“修補；彌補”解。

- 7) 麼：太田辰夫著，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麼」也有表示不滿的語氣的。它是在對方不知道這個事實或知道這個事實但不承認的情況下用的，具有“…嘛”“當然是…”的意思。最近這種場合下多用“嘛”，用以和表示疑問的“嗎”區別。較早的例子如：“小人不說謊，他是罵你來麼。（陳州糶米1）”（北京大學出版社，1987，頁334。）
- 8) 節子：木材上的疤痕，是樹的分枝在幹枝上留下的節疤。
- 9) 事件：部件，零件。（許少峯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701。）
- 10) 鉞兒：鉞，【集韻】曲勿切，音屈。鉞鉞，鎖鈕。【正字通】按，鉞鉞，一作“屈膝”，“屈戌”。…張伯雨有一器是香爐，蓋有鎖者。屈戌，乃受鎖之搭連卷口也。（《康熙字典》，臺灣文化圖書公司，1975年）。「鉞鉞，屈戌。鎖鈕，鎖鼻子（《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 11) 了吊兒：搭扣。《龍圖耳錄》第三回：「（包頭）正在凝神，忽聽門外了吊克嚇一聲，彷彿吹削的一般，開門處，進來一人。」（許少峯編，同前揭書，頁1159。）
- 12) 生活：指手工製品。《元典章·戶部八》：「令各處鋪戶之家，長現在鐵器生活須管立限發賣了畢。」（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285。）
- 13) 廝：對人不尊敬，輕視的稱號。“那廝”就是對“歹人”的貶稱。
- 14) 誑：用謊言騙人。
- 15) 猾賊：（1）奸狡。《明史·奸臣傳·阮大誠》：「猾賊縱橫，乘此無備。」（2）奸狡之人。宋·蘇軾《與章子後書》：「有猾賊十許人，一呼其間，吏兵皆棄而走耳。」（《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 16) 好生：此作甚辭，有非常、很是、多麼等意。明劇《彩樓記》八：「這放羊的狗骨頭，好生無禮。」（顧學頌、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頁15）
- 17) 捏拐：捏，編造。拐，騙。捏拐，應是“拐騙人口，誑騙財物”之意。
- 18) 東西：特指人或動物（含愛、憎感情）。元·馬致遠《青衫淚》第三折：「但犯着吃齋者，不是好東西。」（《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 19) 落：克扣，中飽錢財。
- 20) 臨了：最後，到後來。《朱子語錄》第一三七卷：「及才議學校，便說不行，臨了却又只是詞賦好，是甚麼議論！」（許少峯編，同前揭書，頁1169。）
- 21) 吃：挨，遭。《三遂平妖傳》第六卷：「我從來愛取笑人，昨日不合撩撥了這婦人，吃胡子打了一頓拳頭。」（許少峯編，同前揭書，頁244。）
- 22) 道：量詞，猶遍、趟。菜肴一款。《水滸傳》九回：「吃得一道湯，五七杯酒。」（龍濟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年，頁13。）
- 23) 拿：捉，擒獲。
- 24) 相公：對當官人或有身份的人的尊稱。

[번역]

甲某: 어제 木手인 이삼(李三)의 집에서,²⁵⁾ 즉석에서 껌 짹 하나를 만들기로 하고 그에게 銀子 두 냥을 주기로 합의를 하였지요. 가져온 것²⁶⁾ 보니,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칠도 좋지 않으며, 판목(板木)도 얇고, 모두 잇대고 덧대어서, 웅이 또한 많이 박혀있었습니다. 장식도 튼튼하지 않고, 두 개의 배목²⁷⁾과 한 개의 걸쇠, 모두가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물건을, 가져다 무엇 하겠습니까?

乙某: 그 작자는 사람이 아니고, 교활하고, 엄청 속임수를 잘 쓰는 놈입니다. 이 껌 짹은 아무리 값을 잡아도 銀子 한 냥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甲某: 이놈이 내 돈 한 냥(兩)을 가로챘고, 난 결국 그에게 한 방 얻어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내 이 놈을 잡는다면, 짐승(나귀)처럼 때줄 것입니다.

乙某: 관두시지요, 용서하시지요! 대인은 소인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 하였습니니다.

25) 原文 '夜來着李三木匠家裏, 旋做一個櫃子'의 諺解는 '어제 李三으로 하여 木匠의 집의 櫃를 마초이되(어제 李三을 시켜 木手네 집에서 껌 짹 하나를 맞추고)이다. 즉 '着'을 '~로 하여금 ~하게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역동사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本文'의 '着'을 '叫' 또는 '讓'의 의미를 가지는 사역동사로 본다면, 改修本人 《朴通事新釋諺解》에서처럼 '木匠家' 앞에 '到'가 와서 「夜來叫李三, 到木匠家做一口櫃子」로 되어 있어야 '어제 李三을 木手에게 보내 껌 짹 하나를 만들라고 하였다' 등으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本文에서는 사역동사 '着' 뒤에 두 번째 動詞인 '到'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석 2)번에서 제시된 두 개의 用例에서처럼 '着'을 장소를 취하는 介詞 '在'로 해석이 되어야 앞뒤의 문맥이 통하고 바른 번역이 된다고 보았다.

26) 原文 '把來'에 대한 諺解는 '가져오니 (민들음이 不成호고)'이다. 앞의 주석 4)번에서처럼,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에서는 「一元極口贊嘆, 便把來念了又念, 牢牢記熟。(一元은 극구 칭찬을 하며, 가져와 읽고 또 읽고, 단단히 숙지를 하였다)」一句를 인용하여 '把來'一詞을 '拿來(가져오다)'로 풀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關漢卿戲曲詞典》에서는 「呀! 爭些兒把來忘了。(아이고! 하마터면 잊을 뻔하였다.)」와 「馬不吃草, 都把來瘦了。(말이 풀을 먹지 않으니, 말랐어.)」라는 用例을 들어 '把來'一詞에 대해 「動詞 바로 앞에서 '把'字와 같은 介詞의 기능을 한다(直接用在動詞全面, 起介詞'把'的作用).」라는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拙稿는 諺解의 '가져온 것을 보니 다 만들어지지도 않고'라는 풀이를 따라 '把來'를 '拿來', 즉 '가져오다'라고 번역을 하였다.

27) 原文의 '鑰鎖'은 '자물쇠' 또는 '자물쇠 고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諺解는 '빚목(배목)'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배목'은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등갈게 구부러 만든 고리 걸쇠」를 말함이다.

第42話

染房裏染東西²⁸)去來。染家²⁹)你來，看生活³⁰)。這楊州綾子³¹)滿七托³²)長，兩頭有記事³³)。染柳黃，碾³⁴)的光着。這被面³⁵)大紅³⁶)身兒，明綠當頭³⁷)，都是擡色的，裏兒都全，要染的好着。這十個絹裏³⁸)，五個大紅碾着，五個染小紅³⁹)乾色罷⁴⁰)。十個絹練⁴¹)的熟到着。這細綿綢⁴²)染鴉青⁴³)，擺一擺。這肉紅⁴⁴)婦人搭忽⁴⁵)表兒，改染做桃紅⁴⁶)，碾到着。商量⁴⁷)染錢着。這柳黃綾染錢五錢半銀子。

28) 東西：此作“物件，什物”。元·楊景賢《西遊記》第三出：「原來是一個匪兒，裏面不知甚麼東西，且待我打開來看。」(許少峯 編，同前揭書，頁470。)

29) 家：附于名詞之後，是表示和它共同的性質，身分職業等等的。例如，“小孩子家”“姑娘家”。

30) 生活：物件，物品。《金瓶梅詞話》第三回：「我不會磨鏡子，我賣些金銀生活，首飾花翠。」(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1667。)

31) 綾子：一種很薄的絲織品，細薄而有花紋，一面光，像緞子。

32) 托：長度單位。成人兩臂左右平伸時兩手之間的距離。《元典章·工部一》：「議得繫官緞匹例，織造幅闊一尺四寸，長五托之上。」(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326。)

33) 記事：疑是“記色”。記色即“憑據、證據”之意。《金瓶梅詞話》第八五回：「薛嫂道：他叫你回個記色與他，或寫寫幾個字兒稍了去，方信我送的有個下落。」(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頁346。)

34) 碾：碾壓，壓平。用光石碾磨紙張、皮革、布帛等物，使緊密光亮。按，碾壓和上色是漿染的兩大工序，石碾是碾壓工具，碾壓後棉花方平滑光亮，也才能克服“凡布縷緊則堅，緩則脆”的病弊。**【夾註】**碾，研石也。形如磨磑一隻之半，轉其外圓以碾絹，則即同砧壽者。

35) 被面：被子朝外的一面的面料(棉被或夾被的正面)。

36) 大紅：正紅色。又稱絳色。《紅樓夢》第三五回：「鶯兒道：‘汗巾子是什麼顏色？’寶玉道：‘大紅的。’」

37) 當頭：縫在被子一端，作為前後標志並防髒作用的布。清·錢大昕《十駕齋養新錄·紉》「予謂被之有紉，若今時當頭矣。吳中方言，以被識為當頭。紉，當聲相近。」(《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38) 裏：語助詞。用在句末，相當于“哩”、“呢”。

39) 小紅：淡紅。宋蘇軾《正風波·詠紅梅》詞：「偶作小紅桃杏色，閑雅，尚餘孤瘦雪霜姿。」

40) 罷：語助詞。太田辰夫 著，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吧”這個字是民國以後使用的，清代以前寫作“罷”。“罷”從可信的宋代資料中找不到例證，因此不能斷定宋代已經用了。現在暫且舉較早的話本的例子。“你將妻子休了罷!”(快嘴李翠蓮記)(北京大學出版社，1987年，頁338。)

41) 練：把生絲、麻或布帛煮熟，使柔軟潔白。

42) 綿綢：亦作“綿紬”。用幾次茧絲經過加工處理紡成綢絲所織的平紋綢。織物表面不光整，但厚實堅牢。《資治通鑑·陳宣帝大建九年》：「周制，‘庶人已上，唯聽衣綢、綿綢、絲布、圓綾、紗、絹、綃、葛、布等九種，餘悉禁之。’」胡三省注：「綿綢，紡綿為之。今誰人能織綿紬，堅厚，耐久服。」(摘自 百度百科)

43) 鴉青：鴉羽的顏色。即黑而帶有紫綠光的顏色。

44) 肉紅：紅顏色的一種，類似肌肉的淡紅色。

五個大紅絹，每一疋染錢四錢家，通⁴⁸⁾是二兩。五個小紅絹，一兩五錢。這鴉青綿綢六錢，被表帶裏兒八錢，都通染錢是五兩四錢半銀子。你將樣子⁴⁹⁾來我看。你來，假如明日這樣兒上的顏色，但⁵⁰⁾有些兒不象時，你便替我再染，我說與你。那的有甚麼話說？幾時來取？外後日⁵¹⁾來取。准的麼？你放心，不誤了你的。

【번역】

甲某: 염색집에 염색하러 갑시다. 이보시오 염공(染工), 이 옷감을 좀 살펴봐 주시오. 이 양주(楊州) 능자(綾子; 무늬 넣은 비단)는 길이가 일곱 발이고, 양 쪽 끝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記色이 있소이다. 유향색(柳黃色)으로 물 들여 주시고 돌로 눌러서(다듬이질 하여)⁵²⁾ 퍼주고 윤기를 좀 내

45) 搭忽: 亦作“答忽, 搭胡”。元代蒙古人衣服中有一種皮襖。蒙古語叫“daqu”。答忽有兩種, 一種是毛向外的羊皮答忽, 對襟無領, 在後下擺處有開衩, 主要是牧民在冬季穿在長袍外面; 另一種是毛向裏, 有面有裏的答忽, 主要是富貴之家天冷是服之。据史料分析(《中國全史(14)》), 答忽有兩種式樣。一種是《元史·輿服志》中的“襴子答忽”即有扣襴的答忽。《元史語解》卷二四·名物門: “達呼, 皮端罩也。”卷七十八作“答忽。”這是無袖皮背心之屬。即沒有雙袖的上衣。《事物紀原》卷三“半臂”: “今背子也。江淮之間, 或曰 綽子。今俗名搭護。”

46) 桃紅: 粉紅色。

47) 商量: 此作“購買、問價”。《宣和遺事》元集: 「那楊志…缺少果足, 未免將一口寶刀出市貨賣。終日價無人商量。」

48) 通: 總共, 全部。《水滸全傳》四一回: 「宋江道: 黃文炳家多少人口? 有幾房頭? 侯建道: 男子婦人通有四五十口。」(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133。)

49) 樣子: 即“樣兒”, 謂可供人模仿的式樣或效法的標準。《金瓶梅詞話》第十六回: 「明日你拿個楊兒來, 我替你做雙好鞋兒穿。」【夾註】樣子, 染家有簿冊一本, 有人求染絹帛者, 必於簿上記其物數及染色, 并其染直, 以當契約者, 謂之樣兒。

50) 但: 凡, 只要。《水滸全傳》第五回: 「哥哥既然不肯落草, 要去時, 我等明日下午, 但得多少, 盡送典哥哥作路費。」(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391。)

51) 外後日: 大後天, 即次後的第三天。《金瓶梅詞話》第三回: 「明日是破日, 後日也不好, 直到外後日方是裁衣日期。」(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905。)

52) 原文의 ‘碾은 ‘碾平(눌러서 퍼다)’의 의미로, 천에 물을 드리거나 풀을 먹인 다음 천의 면을 고르게 다듬어지고 윤기가 나도록 하는 우리의 다듬이질(다듬잇감을 다듬잇돌 위에 올려놓고 다듬잇방망이로 두드리거나 홍두깨에 감은 다음 홍두깨틀에 의지하여 방망이로 두드리면 홍두깨가 돌면서 골고루 다듬어진다.)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夾註】에는 ‘碾石’의 구체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碾은 硯石(맷돌)이다. 그 형체는 연자방아(맷돌)의 반을 쪼갠 것(반원형)으로, 둥근면으로 굴려서 천을 누른다. 다듬이질(粘擣)과 같다.(原文은 앞의 주 34번을 참조) 다음은 中國의 明清時代에 대규모 염색공장에서 행해졌던 다듬이질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流動的傳統: 一條大河的文化印迹》: 「染過布要用踹布石和棗木棍來硨光, 做這個工作的人叫做踹匠, 他雙手扶支架, 雙腳踩在元寶形的踹布石的兩端(踹布石因為是元寶形, 所以也叫‘元寶石’), 石下壓着棗木硨布棍, 棍下的石臺上鋪着染成的布

주시오. 이 이불 홑청은 진홍색 바탕에 녹두 색(明綠)⁵³⁾의 이불깃으로, 모두가 도드라지는 색상이고, 안감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염색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⁵⁴⁾ 이 열 필의 명주(絹)⁵⁵⁾는, 다섯 필은 진홍색으로 물을 들여 주신 다음 다듬이질도 좀 해주시고, 다섯 필은 담홍색(淡紅色)으로 물을 들여 주세요. 열 필의 명주(絹)는 꼭 삶아 주시오. 이 가는 면주(綿綢)⁵⁶⁾는 진한 청색(鴉青)으로 물을 들이고 넓다듬이질⁵⁷⁾로 천

匹, 端匠左右晃踩, 木輓來回滾動, 布匹便現出平而亮的光彩。(作者: 山曼, 浙江人民出版社, 摘自“百度”)

- 53) 原文의 '明綠'은 '綠豆'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 '녹두 색'을 말하고 있다.
- 54) 原文「這被面大紅身兒, 明綠當頭, 都是擡色的, 裏兒都全, 要染的好着。」一句는 改修本人《朴通事新釋諺解》에서는「這被面要染大紅的, 被當頭要染水綠的。」로 刪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原本인《朴通事諺解》本の「這被面大紅身兒 ~ 要染的好着。」一句의 애매모호한 불확실성 때문에 보인다. 動詞 '染'字가 없으므로 '這被面大紅身兒'와 '明綠當頭'를 名詞句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諺解에서도「이 니불 거죽 다홍 몸뚱과 明綠빛 깃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原文 '擡色'에 대해서 漢語詞典 어디에서도 그 用例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擡色'에 대해 '빛도티라(색상이 도드라지다)'라는 諺解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諺解를 참고하여 번역을 하였다.
- 55) "絹"字에 대한 우리말 사전은 "얇고 생기게 짠 무늬 없는 흰 깃"으로 풀이되고 있고, 한자사전의 풀이는 "명주 絹"으로 풀이되고 있다. 原文「這十個絹裏」의 '絹裏'에 대해서《譯註朴通事諺解》(學古方, 2012년, 166쪽 주 250번)에는「絹裏,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裏'字가 '비단'의 의미를 가져야하고, 또한 '裏'字가 中心語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裏'자는 앞의 주 38)번에서처럼 語氣助詞나 方位詞 '~裏'여야 할 것이다. 만일 '조금 거칠게 짠 비단'이라고 풀이가 되려면 '裏絹'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裏絹'一詞는《原本老乞大》本 제10화에서「打染做小紅裏絹」라는 一句에서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의 '裏絹'은「무늬가 없기 때문에 겉옷에 마저 입는 속옷용 깃」을 말함이다. '裏絹'에 대해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中國語文論叢 제47집, 2010년)에서 상세히 논의된바 있다.
- 56) 原文의 '綿綢'는 '綿紬'라고도 하는데, 우리말사전에서는 '綿紬'는 '明紬(명주)'의 같은 말로, '명주실로 무늬 없이 얇게 짠 피륙'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주석 42)번의 설명은 '품질이 낮은 잠사(蠶絲)를 사용하여 짠 표면이 좀 거칠고 투박한 명주'라는 설명으로 보아, 우리의 '明紬'의 뜻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 57) 原文 '擺'字는 '배열하다(布置)', '흔들다(搖晃)', '비틀거리다', '벗어나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詞語이다. 문맥으로 보아 '擺'는 '정리하다, 평평하게 하다, 손질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諺解는 '널다듬이'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넓다듬이질'은 '홍두깨다듬이'라고도 한다.「홍두깨에 올리지 않고 다듬잇돌 위에 넓적하게 개어 놓고 하는 다듬이」라는 우리말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본문은 이에 諺解의 해석을 따라 '넓다듬이질'로 번역을 하였다. 앞의 주석 52)번《流動的傳統: 一條大河的文化印迹》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산업이전의 元明清시대의 染坊에서는 전문적으로 천을 고르고 퍼주는 작업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듬잇돌의 다듬이질보다도 그 규모가 큼을 아래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元寶石, 因其形狀神似元寶而得名, 又稱研光

을 좀 펴주시오. 이 살색의 부인용 더그레⁵⁸⁾ 걸감은 분홍색으로 바꾸고
홍두깨질을 하여 잘 펴주시오. 물들이는 샅이나 흥정해봅시다.

染家: 윗황색(柳黃色) 능자(綾子)는 품삯이 은자(銀子) 五錢半이고요, 다섯 필
의 진홍 깃은 필당 四錢씩이니, 모두 二兩입니다. 다섯 필의 담홍색 깃은
一兩五錢입니다. 이 청색의 면주(綿綢)는 六錢이고, 이불의 호청과 안감
은 八錢이니, 모두 합쳐서 은자(銀子) 五兩四錢半입니다.

甲某: 건본책자나 가져와 보십시다. 이보시오, 만일 이 건본의 색상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다시 염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말을 했습니다.

染家: 그렇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甲某: 언제 찾으러 옵니까?

染家: 글피 찾으러 오십시오.

甲某: 틀림이 없습니까?

染家: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습니다.

第43話

站⁵⁹⁾家擂鼓⁶⁰⁾, 使臣⁶¹⁾來也. 怎麼沒一個聽事的? 百戶⁶²⁾都那裏死去了? 我們都

石、'踹布石'、'扇布石'、'踩布石'、'飛雁石'等, 是古代染布作坊用于碾整染布成品的特有工具, 由上臼和下臼兩部分組成, 各地大小不一, 但形狀相近, 小者五、六百斤, 重者千餘斤. - 摘自百度-

58) 原文의 '搭忽'에 대한 諺解는 '더그레'이다. 앞의 주 45)번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소매 없는
겉옷으로, 이러한 '搭忽', '搭胡'는 나중에 '馬掛(馬褂)'로 변전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복
의 '마고자'와 유사한 형태로 추측된다.

59) 站: 蒙古語의音譯. 驛站, 古時傳遞軍政文書的人中途換馬、食宿或轉遞之所. 元代驛站稱'站
赤', 省稱'站'. 明改站爲'驛', 清代'驛'、'站'並稱.

60) 擂鼓: 急擊鼓. 擂, 敲打. 【夾註】館驛門上皆設更鼓之樓, 凡使客入門必擊其鼓, 招集人衆, 應
辦事務.

61) 使臣: 泛稱皇帝所派遣負有專門使命的官員. 《後漢書·張酺傳》: 「張酺反作色大言, 怨讓使
臣。」宋·周密「齊東野語·謝惠國坐亡」: 「使臣至是一力回護, 幸而免焉。」

62) 百戶: 官名. 元設百戶爲'百戶之長', 隸屬於千戶, 爲世襲軍職. 明·清·爲低級軍官. 《元典
章·兵部·整治軍兵》: 「萬戶、千戶、百戶不肯奉公優恤軍人, 專務剋取益己。」

在這裏。拜揖舍人，與我關字⁶³麼!⁶⁴正官幾員？隨從幾個？將關字來。正官三員，六個伴當⁶⁵，分例⁶⁶支應⁶⁷。大使⁶⁸你來，三個正的，三升米，三斤麵，三斤羊肉，兩瓶酒。從的⁶⁹六個，三升米，三斤麵，三斤豬肉，一瓶米酒⁷⁰和駱、醋、醬、鹽、芥末、葱、蒜、韭菜、油、生蘿蔔、瓜、茄等諸般菜蔬，鷄蛋和升、斗、等子，疾忙如今都將來。如今支一支，休多要你的，休少了我的便是⁷¹。廚子⁷²你來，疾忙做飯。舍人道⁷³做甚麼飯？做乾飯那水飯⁷⁴？熬些稀粥。你將那白麵來，捏⁷⁵些匾食⁷⁶，撇些秃禿麼思⁷⁷，一壁廂⁷⁸熬⁷⁹些細茶⁸⁰。這米廳將去帥一帥。管

63) 關字：應是“關子”。關報，給官員經過之地提前發出的通報，即預先打招呼知會。元·湯顯之《瀟湘雨》四折：「小可是臨江驛的驛丞，昨日打將前路關子來，道廉訪使大人在此經過，不免打掃館驛乾淨。」（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678。）

64) 麼：同前 第41話 註7。

65) 伴當：同伙，伙計；隨從，從僕。《水滸全傳》四四回：「令李立帶十數個火家去山南邊那裏開店，令石勇帶十來個伴當去北山那裏開店。」（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34。）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詞例釋》：「伴字本為伴侶義，“黨”字也可指同伙、同類。…近代漢語作品中，可見“伴當”、“伴僮”、“伴等”等詞，有伙伴、同伴和僕從二義，當系由“伴黨”演變而來。」（吉林教育出版社，1992年，頁13。）

66) 分例：常規。《水滸傳》第十九回：「（朱貴）忙叫酒保安排分例酒來。」【夾註】正官曰廩給，從人曰口糧，通謂之分例。元制，正官一員，一日宿頓，該支米一升，糲一斤，羊肉一斤，酒一升，柴一束，經過減半；從人一名，止支米一升，經過減半。今制，正官一員，一日經過，米三升，宿頓五升；從人一名，經過二升，宿頓三升。漢俗今云“行三坐五”。

67) 支應：供應。也指供應的物品。《西遊記》六八回：「有管事的宋支應來，乃是一盤白米，一盤白麪，兩把青菜，四塊豆腐，兩個麵筋，一盤乾筍，一盤木耳。」（吳士勛 王東明 主編，同前揭書，頁1282）

68) 大使：【夾註】驛館有大使一員，或正九品，或從九品，有副使一員，從九品，亦有未入流大使、副使。詳見《諸司職掌》。

69) 從的：從人。隨從人員；跟差。

70) 米酒：【夾註】米酒，舊本作“一瓶半酒”，新本作“米酒”。今造酒用粳米、糯米、黃米。凡支持使客，皆用此等酒也。不必舉米酒為說，恐是新本仍存“半”字而誤印為“米”字也。今從半字讀，恐或為是。

71) 便是：用于句末，表示肯定。猶就是。

72) 廚子：【夾註】光祿寺有廚者，即供應大小筵宴及館待使客執爨之役者也。

73) 道：語助詞，無義。《追韓信》二【雁兒落】：「丞相道將咱來不住的迂，韓信子索把程途盼。」（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72。）

74) 水飯：(1) 粥，稀飯。《醒世姻緣傳》第四回：「丫頭將酒菜放在桌上。進去又端出一小盆火來，又端出一碟八個餅，兩碗水飯來。」(2) 指用水浸過的米飯。元·鄭光祖《伊尹耕莘》第一折：「新撈的水飯鎖心涼，半載稍瓜蘸醬。」(3) 指祭奠時用的酒、飯。元本·高明《琵琶記·五娘尋夫上路》：「眞容已描就了，只就這裏燒香紙，奠些水飯，拜辭了二親出去。」按，此作“粥，稀飯”。

75) 捏：用手指把軟東西弄成一定的形狀。《紅樓夢》第六七回：「又有在虎邱山上泥捏的薛蟠小象，與薛蟠毫無差錯。」許少峯 編，同前揭書，頁1368。

76) 匾食：同扁食。餃子，鍋貼。《金瓶梅（崇禎本）》第二回：「老婆道：他家賣的拖煎阿滿子，干巴

事的來，馬們怎麼來的遲？這的不來也？舍人你子⁸¹)看。這馬都不中⁸²)。三個官人的馬，將⁸³)三個十分緊躑⁸⁴)的頭馬來。伴當騎的，五個細點⁸⁵)的馬來。我騎的十分快走的馬將來，我又先報馬⁸⁶)去。背包馬們都將好壯馬來。使臣這站裏不宿，疾快將好馬來。拿將⁸⁷)管馬的來吊着，將棍子來打這賊弟子孩兒！你聽我說與你，這使臣是使長⁸⁸)耳目一般⁸⁹)的使臣，你不見這金字圓牌⁹⁰)？一日九站十站⁹¹)家

子肉翻包着菜肉區食餃，窩窩蛤蚧麵，熱燙溫和大辣酥。」按，「區食」，同「扁食」，是北方對餃子的一種稱號。餃子呈扁圓之形，故名。

- 77) 秃秃麼思：【夾註】秃秃麼思，一名手撒麵，即本國의역여미。「秃」字，音早，上聲讀。「麼思」二合爲音ㄊ，急呼則用「思」者。曰早우맛，慢言之則用「食」字，曰早우마시。元時語如此。劑法如水滑麵。和圓小彈劑，冷水浸，手掌按作小薄餅兒，下鍋煮熟，以盤盛，用酥油炒羊肉，加鹽炒至焦，以酸恬湯拌和，滋味得所，別研蒜泥調酪，任便加減，使竹簽簽食之。
- 78) 一壁廂：一面。指同時進行的另一動作。明·高則誠《琵琶記》第四出：「誰知朝廷黃榜招賢，郡中把我名字保申上司去了，一壁廂已有吏來辟召。」(許少峯 編，同前揭書，頁2190。)
- 79) 熬：烹調方法，把蔬菜等放在水裏煮。
- 80) 細茶：茶。即從茶樹上采摘的鮮葉，經過加工制成的茶葉。
- 81) 子：子與則同，猶即也；雖也。《董西廂》四：「有子有牢房地區，有子有欄軍夾畫，有子有鐵裹榆枷，更年沒罪人犯他載他。」凡云有子有，均猶云有即有或有雖有也。更年沒猶云終年無。張相《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頁23。
- 82) 不中：不行，不好。
- 83) 將：拿，取。《元典章·戶部六》：「若將這裏來呵，費了頭口氣力，費了腳錢有。」
- 84) 躑：奔跑；逃竄。
- 85) 點：當是「掂(點)」的借字。顧學頌、王學奇《元曲釋詞》卷一：「掂：一謂以脚尖着地輕行…《西廂記》一本三折【金蕉葉】：「掂着脚尖兒仔細定睛，比我那初見時龐兒越整。」…提起腳跟，用脚尖着地曰掂。字應作點(dian)…顏師古注：「掂，謂輕躑之也。」掂、點均爲點之俗字。或作癩。是也。今北京及南方各地仍以脚尖着地輕行謂之「掂」。(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頁454)
- 86) 報馬：官員啓行時由人騎馬先行至前站報知，謂之報馬。《金瓶梅詞話》第六七回：「看看等到午後時分，只見一匹報馬來到，說侯爺來了。」(許少峯 編，同前揭書，頁67。)
- 87)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 88) 使長：主人，東家。明《殺狗記》第二十出：「好漢姓王名老實，西郊外居住，從來伏侍孫宅使長，至今已過二代。」(許少峯 編，同前揭書，頁1696。)
- 89) 又作「使頭」、「侍長」。蔣禮鴻《敦煌變文字義通釋》：「明人徐渭《南詞敘錄》，曲中常用方言字義條：「使長：金元謂主曰使長。」「使長」這個名稱應該是從「使頭」來的。…嚴敦易注：「使頭，就是使長，宋元時奴婢稱號家主做使長。」(上海古籍出版社，1981年，頁11。)
- 90) 一般：同樣，相等。元·關漢卿《單鞭奪槊》第二折：「是我把右手帶住馬，左手揪着他眼札毛，順手牽羊一般牽他回來了。」(許少峯 編，同前揭書，頁2188。)
- 91) 金字圓牌：【夾註】《至正條格》云：元時，中書省奏，諸王駙馬各投下有軍情緊急重事，許令懸帶原降銀字圓牌應付鋪馬騎坐，其餘差使人員有緊急軍情重事，許令懸帶金字圓牌，方付鋪馬。其他冗常勾當，只許臨時領受，給降聖旨，方許給馬。
- 92) 九站十站：就是「九十站路」。站與站之間的距離稱一站路，大致爲七十里左右。《初刻拍案驚奇》第八卷：「蘇州到南京不上六七站路，許多客人往來來，當初你父親，你叔叔都是走熟的路。」

行，你怎麼肯不將頭馬來？這廝們打的輕，他不睬，好生打。爲頭兒老漢道：“相公可憐見⁹²⁾，我的不是了。這的恰⁹³⁾將來的馬，飛也似⁹⁴⁾緊躡，快走的、點的都有⁹⁵⁾了。”揀定了馬也，轡頭⁹⁶⁾都散與⁹⁷⁾他。明日鷄兒叫一聲便上馬，茶飯⁹⁸⁾都準備下着。當直的⁹⁹⁾點將燈來，我也鋪鋪蓋¹⁰⁰⁾睡些個。相公¹⁰¹⁾鷄兒叫，起來。馬都將來，疾忙着備鞍子，將飯來我吃。牌子¹⁰²⁾令史¹⁰³⁾們來，你與我甘結¹⁰⁴⁾應

(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45。)

- 92) 可憐見：猶云可喜也；可愛也；可羨也；可貴可重也。王安石《過劉貢父》詩：「故知今有可憐人，回首紛紛斗筭窄。」此言見可貴、可重之人，乃知斗筭之人小器也。(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頁604。)見，猶得也；着也。《董西廂》三：「便不辱你爺，便不差見我！」羞見，猶云羞着；便不，猶云豈不。按此爲老夫人責鶯鶯語。…然此在曲文中則多作可憐見。…《董西廂》三：「兀可憐見我那里。」…凡云可憐見，猶云可憐得或可憐着也。(張相，同上揭書，頁631~633。)按，可憐見，方言俗語，宋元時期的習慣用語，同情的意思。
- 93) 恰：剛剛，恰才。
- 94) 也似：那樣，那般。元·王實甫《西廂記》第二本第三折：「白頭娘不負荷，青春女成担閣，將俺那錦片也似前程蹉脫。」
- 95) 有：等，候。元·缺名《凍蘇秦》第三折：「賢士，你則這裏有者，待我將的來。」(許少峯 編，同前揭書，頁2271。)
- 96) 轡頭：駕馭牲口的嚼子的繩。繩纏繞過馬項，兩端分別繫于銜兩側環上，呈封閉式半圓狀，騎者握繩以馭馬。
- 97) 散與：【夾註】轡頭散與，女真達子朝貢時，到驛應付馬匹騎坐者各出轡頭，散與馬夫，馬夫受轡套馬，令各轡主認轡占馬，使無爭占之擾。
- 98) 茶飯：宋元時期把菜稱爲茶。《東京夢華錄》：「凡店內賣下酒，廚子謂之茶飯。」茶飯，這裏泛指普通進餐的菜和飯，也指筵席。《孝經直解》十八：「孝子沒了父母時分…吃茶飯呵不美，阿的便是他煩惱的情分。三日後索要吃些茶飯。」(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39。)
- 99) 當直的：卽當直。隨從，跟班。《京本通俗小說·碾玉觀音》：「郡王收了，叫兩個當直的轎番，招一頂轎子，教取這妮子來。」(許少峯 編，同前揭書，頁398。)
- 100) 鋪蓋：此指被褥。《水滸傳》第四五回：「却說楊雄此日正該當牢，未到晚，先來取了鋪蓋去，自監裏上宿。」
- 101) 相公：對當官人或身份的人的尊稱。同前註 24)。
- 102) 牌子：同“牌軍”。亦作“牌頭”。官衙的役卒。亦指武官的親隨。《馮玉蘭》四折：「梢公云：“牌子，昨晚那個女孩子在那裏？”」祇候云：“在艙裏，你問他怎的？”(龍濟庵 編著，同前揭書，頁898。)
- 【夾註】凡馬驛設置，馬驢不等，其中管馬答應者，謂之馬牌，管驢者，謂之驢牌，總稱牌子。
- 103) 令史：宋元以來指官府的胥吏。《金瓶梅》七二回：「正說着，忽有平安來報，衙門令史和衆節級來稟事。」(許少峯 編，同前揭書，頁1179。)
- 104) 甘結：願意承擔責任而在文書上畫押具結。明·高則誠《琵琶記》第十七出：「左右與他取了甘結，一面着他喚饑民來取糧。」(許少峯 編，同前揭書，頁608。)
- 【夾註】甘結，《史學指南》云：所願曰甘，合從曰結。今按，如保舉人材者，必寫稱所舉之人并無喪過及干娼優子嗣，委的賢能，如虛甘伏重罪”云云。舉此爲辭，以成文狀，與彼收執，或呈報上司，以憑後考，謂之不致扶同，重甘結狀。

付¹⁰⁵)。相公們別沒擎賣¹⁰⁶錢糧¹⁰⁷)，更沒多騎鋪馬¹⁰⁸)，又不曾¹⁰⁹冒支¹¹⁰)分例¹¹¹)，沒一點非禮害民，何故不與甘結？

【번역】

使令: 역참(驛站)의 관리는 복을 올리시오, 사신들이 오고 있소이다. 어찌하여 한 사람도 분부를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관리(百戶)들은 어디들 가서 다 죽었다는 말인가?

百戶: 우리 모두는 여기 있습니다. 나라께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관자(關子)¹¹²)를 주시지요. 관원은 몇 분이고, 시종은 몇 명입니까? 關子를 보여 주시오.

使令: 관원은 세 분이고, 여섯 명의 시종이니, 규정대로 지급해주시오.

百戶: 대사(大使)는, 정관(正官)이 세 분이니, 쌀 서 되, 밀가루 서 근, 양고기 서 근, 술 두 병입니다. 수행원이 여섯 명이니, 쌀 서 되, 밀가루 서 근, 돼지고기 서 근, 미주(米酒) 한 병 그리고 타락¹¹³)과 식초, 장, 소금,

105) 應付: 處置, 處理。《警世通言》第二八卷: 「夜來多蒙小官人應付周全, 識荊之初, 甚是感激不淺。」(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254。)
【來註】《質問》云「應者, 答應也; 付者, 與也。如遇使客到驛, 將口糧馬驢答應與他, 方言謂之應付。」

106) 擎賣: 據有, 掠取。賣, 齎之俗字。

107) 錢糧: 舊時征收田賦時, 既征糧食, 又征銀錢, 總稱錢糧。宋元以來, 或折征銀錢, 或征收糧食, 但一直沿用錢糧的名稱。

108) 鋪馬: 卽驛馬。官府于交通主要路段設置驛站, 配有馬匹, 以備投遞緊急公文和來往官員換乘。《水滸全傳》第一回: 「(洪信)背了詔書, 盛了御香, 帶了數十人, 上了鋪馬, 一行部從, 離了東京, 取路投信州貴溪縣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64。)

109) 不曾: 未曾。與現代漢語“沒有”同。

110) 冒支: 作假支取, 冒領。明·王世貞《鳴鳳記》第二一出: 「你不曉得, 這一半是冒支官糧的虛兵, 恐怕爺爺點名, 故不敢念。」(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250。)

111) 分例: 向來規定的分類。《水滸全傳》第五八回: 「李立道: 「既是來尋宋頭領, 我這裏有分例。」便叫大家快去按排分例酒來相待。」(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565。)
參看前註 66)。

112) 本文의 ‘關字’는 ‘關子’가 맞다. ‘關子’ 또 ‘관문(關文)’이라고도 한다.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편저, 삼성출판사, 1984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1) 조선조 때 상급 관청과 하급 관청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 (2)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게 내리는 허가서, (3) 당나라 때부터 쓰인 말로, 중국에서 각 관청 상호간에 질의 조회하던 왕복 문서, 또는 특별 사항을 관청 간에 개통 전달하는 문서.」

113) 原文의 ‘駱’은 ‘낙타’ 또는 ‘말’의 이름으로 쓰일 뿐, 諺解의 ‘타락(유유)’의 의미는 없다. ‘駱’字의 誤寫로 보인다.

겨자가루, 파, 마늘, 부추, 기름, 무, 오이, 가지 등의 여러 가지 채소와 계란 그리고 (지급되는 양이 정확한지 알아볼 수 있는)되(升), 말(斗), 저울을 지금 빨리 가져오시오. 지금 당장 지급하시오,¹¹⁴⁾ 더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분량만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使令: 주자(廚子)¹¹⁵⁾ 자네는 빨리 밥을 짓게나.

廚子: 나리, 무슨 밥으로 지어 올릴까요? 된밥¹¹⁶⁾으로 지을까요? 아니면 죽을 쓸까요?

使令: 죽을 좀 싸어주시오. 자네는 그 흰 밀가루를 가져다, 편수만두를 빚고, 투투마시(禿禿麼思)¹¹⁷⁾도 좀 뜨고¹¹⁸⁾, 아울러 세차(細茶)도 좀 달여

114) 原文의 '支'에 대해서 諺解는 '支應'으로 풀이하고 있다. '支應'에 대한 풀이는 앞의 67)번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물품을 공급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115) 原文의 '廚子'는「지방 관아의 소주방(燒廚房)에 딸려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4년)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116) 原文의 '乾飯'에 대해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1年)에서는「做熟後不帶湯的米飯(익힌 후에 물기가 없는 쌀밥)」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117) 原文 '禿禿麼思'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카로니(파스타)'와 비슷한 음식으로 추측된다. '禿禿麼思'에 대해【夾註】(위의 註 77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禿禿麼思'는 일명 '手擀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미역저미(수제비)'와 같다. '禿'는 '투'로 발음하고 '上聲'이다. '麼思'이 두 글자를 합친 소리는 '맛'이고, 급하게 소리하면 '思'이다. '투투맛'이라고 하고, 천천히 발음하면 '食'을 써서 '투투마시'라고 한다.元나라 때도 (소리가) 같았다. 만드는 방법은 '水滑麵'(水滑麵은, 拉麵, 拽麵, 抻麵, 香棍麵 등으로도 불리는데, 지금의 수타면과 칼국수 또는 실 같은 기스면(鷄絲麵) 수제비와 같은 모든 형태의 면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과 같다. 반죽하여 작은 알심으로 만든 다음, 찬물에 담갔다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작고 얇은 병(餅)을 만들어 솥에 끓이고 건진 다음, 기름으로 양고기를 볶고 소금을 넣어 조려서 달고 신 국물과 입맛에 따라 다진 마늘과 양념을 적당히 넣고 비벼 먹는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禿禿麼思'는 앞의 註 77)번의 설명에서처럼 元代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음식으로, 宮中에서는 '禿禿麻食', '繫手擀麵' 등으로 불렀다는 설명을 볼 수 있다. 특히 '禿禿麻食'에 대한【夾註】에서의 설명은 아래의 《中國土特產》에서 인용하고 있는 《飲膳正要》과 《事物紀原》 그리고 《居家必用事類全集》과 대체적으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글은 《中國土特產》(丁超選, 1995年 第03期)에서 발췌한 글이다: 「麻食子'는 回族 전통의 민간 먹을거리이다. 寧夏의 山間지역 回族들은 '麻食子'라고 부르고, 四川 지역의 回族들은 '次麵子' 또는 '魚兒鉗沙'이라고 하고, 中原지역의 回族들은 '手擀麵' 또는 '捻麵卷', 南方 사람들은 '貓耳朵' 또는 '空心麵'이라고 한다. 일찍이 元나라 때의 回族들은 이러한 음식을 '禿禿麻食'라고 불렀음을 史書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麻食子'是一種回族傳統的民間風味小吃食品。寧夏山區的回民叫它'麻食子', 川區的回族習慣稱之爲'次麵子'或'魚兒鉗沙', 中原回民叫它'手

주게. 이 썰이 거치니 가져가서 다시 썰게나. 관사(管事)119)는 뭘 하는가? 어찌하여 말들은 이리 늦는가?

管事: 여기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리께서 살펴보시지요!

使令: 이 말들은 전부 형편이 없군! 세 분의 정관(正官)께서 타실 말은, 아주 잘 달리는 최고의 좋은 말 세 필을 가져오게. 수행원들이 타실 말은, 발걸음이 輕快¹²⁰⁾한 말로 다섯 필을 가져오고, 내가 탈 말은 엄청 잘 달리는 말을 가져오게, 난 또 앞의 驛站으로 먼저 가서 使臣들이 곧 당도함을 알려야 하지! 등짐을 실을 말들은 튼튼한 말을 가져오게. 使臣께서는 이 驛站에서 목지 않을 것이니, 빨리 좋은 말들을 가져오게. 말들을 관리하는 자를 잡아다가 매달고, 몽둥이를 가져와 이 나쁜 놈들을 쳐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 使臣들은 임금의 귀와 눈과 같은 使臣이시다, 너희는

撇麵”、“捻麵卷”，南方人叫“猫耳朵”、“空心麵”。据史書記載，早在元代，回回人首先食用這種食品，喚作“秃秃麻食”。元代飲膳太醫忽思慧在《飲膳正要》一書中說：“秃秃麻食，回回食麵，繫手撇麵，白麵6斤做秃秃麻食，羊肉一脚子，炒焦肉乞馬，用好肉湯下，炒葱調和勻，下蒜酪、香菜末。”這里指另泐湯膾秃秃麻食。明代美食學家黃一正在《事物紺珠》一書中也有說明：“秃秃麻食是麵作小卷餅，煮熟入炒肉汁食。”」

- 118) 原文 ‘撇’字는 ‘(물건을) 똑바로 던지다’, ‘입을 삐죽거리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上右에서 下左로 굽게 빠진 획, 즉 한자의 부수 ‘丷(삐짐 별)’字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앞의 주 77)번에서 「반죽하여 작은 알심으로 만든 다음, 찬물에 담갔다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작고 얇은 병(餅)을 만든다」라는 夾註의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손가락으로 알심을 누르고 문질러서 삐짐 모양의 ‘秃秃麻思’를 만들었기 때문에 ‘撇’字가 쓰이고, 또한 ‘手撇麵’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 119) 原文의 ‘管事’는 驛站에서 일을 보는 아전으로 보인다. 바로 뒤에 또 ‘管馬的’라는 명칭도 볼 수 있다.
- 120) 原文의 ‘細點的馬’에 대해 ‘세가탈 흐는 말’이라는 이해를 볼 수 있다. ‘세가탈’에 대한 《李朝語辭典》(李昌椿著, 延世大學校 出版部)에서는 ‘발을 조금 절다로 풀이하고 있다. 《새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편저, 삼성출판사, 1984년)에서 ‘가탈 흐는 말’, ‘세가탈’에 대하여 각각 ‘가탈거리다; 말의 걸음이 순하고 고르지 못하여 탄 사람에게 불편을 자꾸 주다’, 「말이 약간 달달거리고 걷는 모양」 등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本稿는 위의 註 85)번에서처럼 ‘點’을 ‘掂(발끝을 세우다)’의 音借字로 보고, ‘細’를 ‘輕微’ 등의 의미도 가지므로 ‘點的細’의 의미는 《새우리말 큰사전》의 풀이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발끝으로 찍듯이 총총걸음으로 걷다’, ‘발끝으로 경쾌하게(細) 걷다’ 등으로 번역을 하였다. 使令이 먼저 驛站에 도착하여 一行을 위해 여러 종류의 말을 요구하고, 또한 그러한 말을 수령하는 장면이다. 일행을 위하여 타고 갈 마필을 요구하는데, ‘발을 저는 말과 같은 瑕疵가 있는 말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五個細點的馬’와 ‘點的’에서의 ‘點’을 ‘蹠’으로 보고, 또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발끝으로 경쾌하게(細) 잘 걷는 말’ 등으로 새겨야 된다고 보았다.

여기 이 金字圓牌가 보이지 않는가? 하루에 칠팔 백 리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가장 좋은 말들을 가져오려 하지 않는가? 이 작자들이 매가 부족하여 대꾸도 하질 않으니, 매우 처라!

老漢: 맨 앞¹²¹⁾의 늙은 사내가 말한다. 나리 용서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금방 가져온 말들은 나는 듯이 뛰고, 빨리 달리는 말과 경쾌하게 잘 달리는 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使令: 말들을 골랐으니, 굴레를 각각 임자들에게 나눠주시오. 내일 닭이 울면 바로 출발할 것이니, 음식도 바로 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자네는 등잔에 불을 부쳐오게나, 난 잠자리를 펴고 잠을 좀 자야겠네.

當直: 나리, 새벽닭이 울었으니 일어들 나시지요.

使令: 말들을 끌어와 빨리 안장을 엮고, 밥을 먹게 준비를 하시오. 驛站의 관리들은 우리들에게 제공한 물품 목록 장부를 보여주시오.¹²²⁾

牌子: 나리들께서는 양곡을 더 요구하지 않았고, 타고가실 말들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속여서 수령하시지도 않으셨고, 조금도 예의에 벗어나거나 민폐를 끼친바가 없는데, 어찌 장부(甘結)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第44話

我本待¹²³⁾請你去來, 遭是你來也。我今日買一個小廝兒¹²⁴⁾, 他的爺娘立與¹²⁵⁾文

121) 原文의 '爲頭'는 '從頭, 開頭, 즉 '맨 앞 또는 첫 번째'의 의미를 가지거나, '首領, 帶頭兒', 즉 '우두머리' 등의 의미를 가지는 詞語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늙은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2) 原文의 '甘結'에 대해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던 공문」이라는 우리말사전의 풀이를 볼 수 있다. 近代漢語사전에서는 앞의 주 104)번에서처럼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 날인의 확인 문서'를 '甘結'이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驛站에서 제공 받은 목록(장부)에 대한 확인 및 날인하는 절차를 '甘結'로 보았다.

123) 待: 猶將, 要, 打算的意思。《救風塵》一、白: 「他一心待嫁我, 我一心待娶他, 爭奈他媽兒不肯。」(顧學頤 王學奇, 同前揭書, 頁379。)

書來¹²⁶), 你與¹²⁷)我看一看中¹²⁸)也不中。將來我念。大都¹²⁹)某村住人錢小馬, 今將親生孩兒小名喚¹³⁰)神奴, 年五歲無病。少¹³¹)人錢債, 關口少糧¹³²), 不能養活, 深爲未便。隨¹³³)問¹³⁴)到本都在城¹³⁵)某坊住某官人¹³⁶)處¹³⁷)賣與。兩言議定, 恩養¹³⁸)財禮¹³⁹)錢五兩, 永遠爲主, 養成驅使¹⁴⁰)。如賣已後 神奴來歷不明, 遠近親戚閑雜人等¹⁴¹)往來爭競¹⁴²), 賣主一面¹⁴³)承當¹⁴⁴)不詞, 並不干¹⁴⁵)買主

- 124) 小厮兒：一般籠通地通稱小子、男孩子爲小厮。未成年的男僕人也做小厮。按，此作“童僕”。
- 125) 立與：就是“立”也。“立”，簽訂，訂立。“與”，助詞。無義。
- 126) 來：此作語助詞，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
- 127) 與：介詞。爲；替。關漢卿《四春園》三：「寶鑒 白：‘你與我喚出茶三婆來。’」（藍立莫 編著，同前揭書，頁363。）
- 128) 中：適于；合于。徐本《任風子》三【普天樂】：「這的中做布碾，好做鋪持。」
- 129) 大都：大都是元朝的都城，忽必烈所建，即今北京的前身。明朝建立後，朱元璋改大都爲北平。明成祖即位後改爲北京，自此一直沿用至今。
- 130) 喚：叫做，稱作。《二刻拍案驚奇》卷二：「話說國朝正德年間，陝西有兄弟二人，一個名喚王爵，一個名喚王祿。」（高文達 主編，同前揭書，頁315。）
- 131) 少：欠，該。《金瓶梅詞話》第二回：「西門慶道：‘干娘，我少你多少茶果錢？’王婆道：‘不多，由他！’」（許少峯 編，同前揭書，頁1621。）
- 132) 關口少糧：疑是“關少口糧”之倒寫。關少，即“缺少”。“口糧”，即“口食，食糧”。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口糧，對窮苦無告之人計口所施之糧。《封神演義》：“孤寒無依者，當月給口糧，毋使欠缺。”」（中華書局，2008年，頁1060。）
- 133) 隨：隨即，就此。《紅樓夢》第六回：「劉姥姥聽了謝過，隨帶了板兒繞到後門上。」（許少峯 編，同前揭書，頁1775。）
- 134) 問：打聽。關漢卿《竇娥冤》四：「竇天章 白：‘老夫自得官之後，使人往楚州山陽郡問蔡婆婆家，他隣里街坊道，自當年蔡婆婆不知搬在那裏去了，至今音信皆無。’」（藍立莫 編著，同前揭書，頁300。）
- 135) 在城：本城。指所居的城市。《清平山堂話本·錯認尸》：「在城衆安橋北首觀音庵有一個商人，姓喬名俊，字彥杰，祖貫錢塘人。」（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15。）
- 136) 官人：對男子的尊稱，泛稱。《水滸傳》八回：「董西公，一位官人在小店裏講說話。」按：《夢梁錄》卷十三：“鋪席”：“張官人諸史文籍鋪、徐官人幞頭鋪”此商人之稱。《武林舊事》卷六“諸色伎藝人”記：“棋待詔、金四官人；書會：李大官人；演史：周八官人等。此藝人之稱。”（龍潛庵 編著，同前揭書，頁577。）按，此作“客人”，即“兄弟們”。
- 137) 處：用于詞尾，表示地點，所在。
- 138) 恩養：愛護養育。元·無名氏《小尉遲》第一折：「有宇文慶是養爺，幼小裏將我來恩養的成人長大。」
- 139) 財禮：也稱 聘金、聘禮。舊時指男方訂婚或結婚時，由男方付給女方的貨幣或財物。吳自牧《夢梁錄·嫁娶》：「次後擇日則送聘，預令媒氏以鵝酒重則羊酒。道日方行送聘之禮，且論聘禮，富家當備三金送之，則金釧、金鐲、金帔是也。…謂之下財禮。」
- 140) 驅使：驅遣，役使。
- 141) 閑雜人等：與事無關的人。《三國演義》第一百三回：「若七日內主燈不滅，吾壽可增一紀；如燈滅，吾必死矣。閑雜人等，休教放入。」
- 142) 爭競：爭執，計較。

之事。恐後無凭，故立¹⁴⁶此文字¹⁴⁷爲用。某年月日。賣兒人錢小馬同賣人妻何氏。見人¹⁴⁸某。引進人某。買人的文契只這的是¹⁴⁹，更¹⁵⁰待怎的¹⁵¹？沒保人¹⁵²中¹⁵³麼？怕甚麼？買人的契，保人只管一百日，要做甚麼¹⁵⁴？五歲的小廝，急且¹⁵⁵那裏走？

【번역】

買主: 제가 청하고자 가려고 했는데, 마침¹⁵⁶ 오셨군요. 제가 오늘 종으로 부릴 아이를 샀고, 그 아이의 부모가 계약서를 써 주었는데, (계약서)작성이 잘 되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乙某: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3) 賣主一面: 一面, 卽“一方”。【夾註】《音義》云: 猶言賣主自身。又, “一面”詳見《字解》。

144) 承當: 承擔, 擔當。

145) 不干: 不關, 與無涉。《水滸全傳》第四六回: 「眼見得這和尚裸形赤體, 必是和那頭陀干甚不公不法的事, 互相殺死, 不干王公之事。」(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1。)

146) 立: 簽訂, 訂立。《三國演義》四九回: 「孔明曰: ‘倘若放了時, 却如何?’ 雲長曰: ‘願依軍法。’ 孔明曰: ‘如此, 立下文書。’」(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39。)

147) 文字: 文書, 公文。《三國志平話》卷下: 「前後一月, 求救文字, 三番皆被劉封納殺不申。」(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825。)

148) 見人: 證人, 目擊者。明·范受益《尋親記》十出: 「(生云)差役科夫常例, 又無殺父母之仇, 豈敢傷人命。(小生云)如今現有見人。」(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546。)

149) 這的是: 真正是, 確實這樣。元·楊梓《豫讓吞炭》一折: 「爲甚把武王扶持做了至尊, 這的是法正天心順。」(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474。)

150) 更: 再, 又。關漢卿《謝天香》四【哨遍】: 「又無箇交錯觥籌, 更無箇賓客閒遊飲杯酒。」(藍立堯 編著, 同前揭書, 頁92。)

151) 怎的: 幹麼, 爲甚麼。明·高則誠《琵琶記》第二二出: 「你新弦既撇不下, 還思量那舊弦怎的?」(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30。)

152) 保人: 擔保人。元·缺名《鶯鶯被》楔子: 「既是這等呵, 借與他一個銀子, 着他立一紙文書, 你就做保人。」(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40。)

153) 中: 行; 可。關漢卿《五侯宴》四 李嗣源白: 「從珂, 中說的便說, 不中說的休說!」(藍立堯 編著, 同前揭書, 頁398。)

154) 做甚麼: 幹甚麼。亦作“做甚”。關漢卿《胡蝶夢》三 張千白: 「老村婆子! 這是你家裏? 你來做甚麼?」(藍立堯 編著, 同前揭書, 頁415。)

155) 急且: 倉促, 一時間。

156) 原文‘遭是’에 대한 諺解는 「마즘네 오나다. 이라고 하여 ‘遭是’를 ‘마침’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遭’ 또는 ‘槽’에 대해 그 어느 자료에서도 ‘마침’ 등으로 쓰이고 있는 用例를 찾아 볼 수 는 없다. 다만 소리가 비슷한 ‘早是(蚤是, 早時)’가 ‘已是’, ‘幸虧’, ‘當初’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에 ‘遭是’를 ‘早是(蚤是)’의 通假로 보았다. 《朴通事新釋諺解》本에서는 ‘遭是’가 刪改되어 「我本待要請你去, 你却來了」로 나타나고 있다.

大都: 아무 마을에 사는 사람 錢小馬는 현재 兒名이 神奴라고 하는 친자식은 나이가 다섯 살이고 건강합니다. 남에게 빚을 지고, 양식이 부족하여, 양육할 수가 없어, (마음이)매우 편치 못했다.¹⁵⁷⁾ 수소문하여 大都에 살고있는 아무 마을(某坊) 아무 관인(某官人)집에 팔기로 하였고, 이에 兩家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양육비로 銀 닷 냥(兩)으로, 영원히 (아이의)소유하여, 키워 노비로 부릴 것이다. 만일 팔고나서, 神奴의 來歷이 불분명 하거나, 모든 친척과 雜人들이 오가며 시비가 붙는 경우, 관 쪽에서 기꺼이¹⁵⁸⁾ 감당하고, 산 사람과는 관련짓지 않는다. 후에 증빙서류를 삼고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某年 月 日

아이를 판사람 錢小馬, 판 사람의 아내 何氏

증인 아무개

소개인 아무개

乙某: 人身賣買 계약서가 확실한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買主: 보증인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乙某: 뭘 걱정하십니까? 사람을 사고파는 계약서에 대해서, 보증인은 백일 동안만 보증을 서는데, 뭘 하시려고요?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금방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157) 原文 '深爲未便'에 있어, '深'은 '甚'과 통용이 되므로 '매우'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未便'대한 近代漢語詞典에서는 用例를 찾을 수가 없고, 다만 現代漢語詞典에서는 '不方便; 不宜'라는 해석을 볼 수가 있다. 改修本인 《朴通事新釋譯解》本에서는 '深爲未便'一句 삭제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앞뒤의 문맥을 보고 「(마음이)매우 편치가 못했다」라고 풀이를 하였다.

158) 原文의 '不詞'는 '不辭'로 보았다. '不辭'는 '不告別(알리지 않다)' 즉 '不辭而別(알리지 않고 떠나다)'와 '不推脫; 不拒絕(거절하지 않다)', 즉 '不辭辛勞(수고를 마다하지 않다)' 등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우리말사전에서도 '사양하지 아니하다, 마다하지 않다'의 풀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앞뒤의 문맥을 보아 '기꺼이 감당하다'로 번역을 하였다. 諺解에서는 '承當하야 말 못호고'라는 풀이를 볼 수 있다.

第45話

一兩日上位¹⁵⁹郊天¹⁶⁰去，怎麼還不會¹⁶¹修理車輛？叫將¹⁶²那木匠來，買饋他木料¹⁶³、席子整理¹⁶⁴。車輛都有¹⁶⁵麼？都有了。那們時，如今少甚麼？少梯子¹⁶⁶、撐頭¹⁶⁷、套繩、撒繩、拘索、籠頭¹⁶⁸、脚索、鞍子¹⁶⁹、肚帶¹⁷⁰。我饋你銀子，如今都買去。鑼鍋¹⁷¹、柳箱、灑子、三脚、碗¹⁷²碟¹⁷³、匙筋¹⁷⁴、槁杓¹⁷⁵、箆籬¹⁷⁶、炊箒、檫床兒¹⁷⁷、簸箕¹⁷⁸、篩子¹⁷⁹、馬尾羅兒¹⁸⁰、卓兒、

159) 上位：上司，上級。此指稱皇帝。明·王世貞《鳴鳳記》第七出：「老太師還不知，上位正要罷兵，見你的和戎兵，不勝歡喜。」（許少峯 編，同前揭書，頁1641。）

160) 郊天：就是在郊外設壇祭天。《禮記·禮器》：「郊帝于郊，敬之至也。」【夾註】郊天，天子設園丘於南郊，以祭天神、地祇、日月星辰、山川嶽瀆，以太祖配享。古制，冬至祭天。今制，正月十五日以稟祭天，謂之拜郊。

161) 不會：未曾。與現代漢語“沒有”同。

162)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163) 木料：【夾註】木料，凡造一件物而該用之物皆曰料。木料，나모브딛마모，詳見《字解》“料”字下。

164) 整理：修治，整治。元·關漢卿《魯齋郎》楔子：「小官魯齋郎，因這壺瓶跌漏，去那銀匠鋪，整理一整理。左右，接了馬者。」（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80。）

165) 有：等候。關漢卿《五侯宴》三：「劉知遠見科，云：‘哥哥，呼喚你兄弟那廂使用？’李嗣源云：‘且一壁有者，等五將來全時，支拔與你軍馬。’」（藍立莫 編著，同前揭書，頁360。）

166) 梯子：【夾註】《音義》云：車前 괴오는 나모。

167) 撐頭：【夾註】《音義》云：車後 괴오는 나모。

168) 籠頭：勒。也稱絡頭，俗稱馬籠頭。用來拴馬的專用皮具，形狀像一個籠子，用于把馬頭套起來，然後再繫上繩。按，一副完整的勒由革制的“項帶、額帶、鼻帶、咽帶、頰帶和銜、鑿”等組成。

169) 鞍子：放在牲口背上馱運東西或供人騎坐的器具，多用皮革或木頭加棉墊制成。

170) 肚帶：圍繞馬騾等的肚子，把鞍子等緊緊繫在背上的皮帶。

171) 鑼鍋：亦作“烙鍋”。本為軍中用具。鍋鑼兩用(白天燒飯，晚間報更)。

172) 碗：同“碗”。盛食物或飲料的器皿。

173) 碟：碟子。盛食物等的器具，比盤子小，扁而淺。“碟”古同“碟”。

174) 筋：即“筷子”。

175) 槁杓：應是“馬杓”。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元·無名氏《魚樵記》三〔煞尾〕白：（搖鼓叫科，云：）箆籬、馬杓破缺也換那！」馬杓，盛飯、舀酒或舀水的大柄木杓；一作“馬勺”。…元·楊維禎《吳下竹枝歌》：「銀馬杓中勸郎酒，看郎色似赤瑛盤。」此皆以“馬杓”和“幹糧或酒連舉，並可證。…按，今河北方言，炊具中尚保存馬杓之名，一般是用木頭做的長柄大杓，多用于盛飯。…劉紹棠《蒲柳人家》十一：“你是紅口白牙跑舌頭，馬勺上的蒼蠅混飯吃。”皆其例。按，凡物之較大者，古人多以“馬”字形容之，如馬蚰(zhu)，《方言》：

盤子、茶盤、擡盞¹⁸¹)、壺瓶、酒甕¹⁸²)、銅杓都收拾¹⁸³)下着。各樣帳房室車¹⁸⁴)、席筐、馬槽¹⁸⁵)都吐¹⁸⁶)麼? 都吐。你這車子先將到門外, 買些柴、拳頭菜¹⁸⁷)、茶葉拿去。我囑咐你, 到那裏各自省¹⁸⁸)睡些個, 黑夜用心好生看¹⁸⁹)着。我慢慢的跟¹⁹⁰)駕¹⁹¹)去。

【번역】

甲某: 하루 이틀 후면 천자께서 교천(郊天)¹⁹²)가시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수

‘馬蚘(xian)…其大者謂之馬蚘。馬蚘(tiao), 《爾雅·釋虫》:“蚘之最大者謂馬蚘。”郝疏引孫炎曰:“蚘(mian), 馬蚘, 蟬最大者也。馬蓼, 見《本草》。李時珍云: 凡物大者皆以馬名之, 俗稱大蓼是也。”因此, 杓之大者曰馬杓, 卽長柄杓, 其命義相同(語文出版社, 2002年, 頁707)。」現在的有些農村把瓢叫做馬勺(mǎshuó)。周立波《暴風驟雨》第一部十一:「馬勺子挂在爐子旁邊, 鍋裏空空的, 碗架裏面啥也沒有。」(摘自 百度)

- 176) 草籬: 應是“荻籬”。用竹蔑、柳條、鐵絲編成的杓形用具, 能漏水, 用來在湯裏撈東西。
- 177) 檫床: 【夾註】《音義》云: 用木小板長尺餘, 橫穿爲空二三十穴, 各用薄鐵爲刀廂其中, 以蘿蔔等物按磨於鐵刃之上, 其絲從穴下墜, 勝於刀切。今按, 卽本國헐갈。
- 178) 簸箕: 用藤條或去皮的柳條, 竹篾編成的大撮子, 揚米去糠的器具。
- 179) 篩子: 用竹子或金屬等做成的一種有孔的器具, 可以把細東西漏下去, 粗的留下, 稱“篩子”。
- 180) 馬尾羅兒: 亦作“馬尾羅”。以馬尾或馬鬃爲篩絹的篩子。
- 181) 臺盞: 應是“臺盞”。亦作“臺琖”。有托的杯子。宋·程大昌《演繁露·托子》:「古者彝有舟, 爵有玷, 卽今俗稱臺盞之類也。然臺盞亦始於盞托, 托始於唐, 前世無有也。」《遼史·禮志三》:「宋使祭奠吊慰儀…大使近前跪, 捧臺琖, 進奠酒三, 教坊奏樂, 退, 再拜。」
- 182) 酒甕: 古酒器名, 革制。宋·林洪《山家清事·酒具》:「舊有扁提, 猶今酒甕; 長可尺五而匾, 容斗餘; 上竅出入, 猶小錢大, 長可五分, 用塞; 設兩杯帶, 以革唯漆爲之。」(《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 183) 收拾: 料理, 按排。元·缺名《衣襖車》一折:「狄青收拾軍裝去了也, 凭着此人英雄, 必有輔國之志, 定亂之術。」
- 184) 帳房室車: 帳房, (1) 軍帳。(2) 帳篷, 蒙古包。(《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夾註】室車, 鄉習以細字作室字讀, 謂車上設屋可臥者也。然漢人凡稱物之善者皆曰細, 如云茶之好者曰細茶。今此細車亦謂設帳房於車上爲屋, 乃車之善者也, 故謂之細車。連呼帳房細車讀亦通。《質問》云: 如婦人所乘車, 周圍雕刻花榻, 油飾花須, 方言謂之細車。又云: 女人所乘有榻長蓋之車。
- 185) 馬槽: 飼馬之槽。木制或石制。
- 186) 壯: 牢固, 結實。(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521。)
- 187) 拳頭菜: 蕨。多年生草本植物。生在山野。嫩葉可食, 俗稱蕨菜。亦作“蕨拳”、“拳頭菜”。
- 188) 省: 節制, 減少。
- 189) 看: 此作“接待”。蔣禮鴻《敦煌變文字義通釋》:「《太平廣記》卷十八引《續玄怪錄》:“阿春因教鳳花臺鳥:‘何不看看客? 三十郎子以黃郎不在, 不敢接待郎君。’”“看就是“接對”。“看”、“看待”又作照顧解。」(上海古籍出版社, 1981年, 頁200。)
- 190) 跟: 隨, 同。
- 191) 駕: 古代車乘的總稱, 亦特指帝王的車, 轉指帝王。

레를 수리 하지 않았는가? 목수를 불러오고, 목재와 돛자리를 사다주어 수리토록 하시오. 수레는 대기하고 있는가?

乙某: 대기하고 있습니다.

甲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부족한가?

乙某: 수레의 앞 버팀목과 뒤 버팀목¹⁹²⁾ 그리고 메는 줄¹⁹⁴⁾, 끄는 줄¹⁹⁵⁾, 가슴걸이¹⁹⁶⁾, 굴레¹⁹⁷⁾, 지달¹⁹⁸⁾, 길마(안장)¹⁹⁹⁾, 오랑(腹帶) 따위가 부족합니다.

甲某: 내가 銀子를 줄 것이니, 지금 모두 사라 가게나. 술²⁰⁰⁾, 설기(柳箱)²⁰¹⁾, 두레²⁰²⁾, 삼발이²⁰³⁾, 사발과 접시, 수저, 표자(杓子: 자루가 긴 나무주

192) 原文의 '郊天'은 임금이 교외에 나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193) 原文 '梯子, 撐頭'에 대한 諺解는 「술외 얇 피오논 나무, 술외 뒤 피오논 나무」, 즉 수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는 버팀 목 이라는 설명이다. 이 두 語彙에 대한 用例를 近現代漢語詞典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河北方言詞匯編》(李行建 主編, 商務印書館, 1995年, 303 쪽)에서 '停車時用以支車의 木棍(수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버팀목)이라는 설명과 함께 '撐, 前撐, 車撐, 車梯, 車梯子, 車支兒, 車轆子' 등의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므로 '梯子, 撐頭'는 수레를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아닌, 諺解의 설명처럼 '버팀목'이 맞다.

194) 原文 '套繩'에 대한 諺解는 '뿔 줄'이다. 許少峯 主編의 《近代漢語詞典》에는 '套索'라는 어휘와 함께 '一種一端結成活套의 繩索(한쪽 끝에 올라미로 되어 있는 새끼)'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團結出版社, 1997年, 1104쪽).

195) 原文 '撒繩'에 대한 諺解는 '쓰을 줄'이다.

196) 原文 '拘索'에 대해 '목집게'라는 諺解를 볼 수 있는데, '목집게'는 '말의 가슴에 걸어 안장에 매는 가죽 끈'으로 '가슴걸이'의 옛말이다.

197) 原文의 '籠頭'는 말의 머리에 '씩우는 굴레'로서, 가죽 끈 등으로 만들며, 고삐와 장식(방울) 따위를 단다. '籠頭'와 '轡頭'는 말의 머리에 '씩우는 굴레'를 뜻하는 같은 말이다.

198) 原文 '脚索'의 諺解는 '지달 솔'이다. '지달'은 《李朝語辭典》에 '말에 매는 것'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脚索'은 글자 그대로 말 등의 짐승이 함부로 뛰지 못하게 그 발을 얽매는 끈이다.

199) 原文의 '籠頭'는 말의 머리에 '씩우는 굴레'로서, 가죽 끈 등으로 만들며, 고삐와 장식(방울) 따위를 단다. '籠頭'와 '轡頭'는 말의 머리에 '씩우는 굴레'를 뜻하는 같은 말이다.

200) 原文의 '羅鍋'는 징 모양의 솥을 말한다. '羅鍋'는 본시 軍中에서 낮에는 취사도구로 밤에는 경보용으로 쓰이는 동라(銅鑼)를 말한다.

201) 原文 '柳箱'에 대해서 '섞'이라는 諺解를 볼 수 있다. '섞'은 '설기(싸리 채나 버들 채 따위로 엮어서 만든 장방형의 상자)의 옛 말'이다.

202) 原文 '灑子'의 諺解는 '드레'다. '灑子'는 '洒子'의 형태로 《老乞大諺解》(31쪽 b면) 「這水小, 再打上一洒子着. 將洒子來, 我試學打(여기 물이 모자라니, 한 두레박 더 길어 올려야 겠소. 두레박을 가져오시오, 내 물 길는 법을 배워보겠소)」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諺解도 '드레'다. 이에 《老·朴輯覽》 '洒子條'에 「洒子, 汲水之器, 以柳枝編成者呼曰柳罐, 元語謂帖落(洒子'는 물을 길는 용기. 버드나무로 엮은 것을 '柳罐'이라 한다. 元代의 말로

거)204), 조리205), 설거지 술, 채칼206), 키207), 어레미208), 말총
 체209), 상210), 반(盤)211), 차반(茶盤), 대잔(臺盞)212), 호병(壺瓶), 주

는 '帖落'이라 한다.)」라는 풀이를 볼 수 있다. 《原本老乞大》本에서는 '帖落'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帖落'에 대해 陸澹安 編著, 《戲曲詞語匯釋》(上海古籍出版社, 1984年, 655쪽)에 「帖落, 應是鐵落。鐵落即鐵桶」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사전에서 볼 수 있는 '두레'에 대한 설명이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언덕진 높은 곳의 논이나 밭에 퍼붓는 기구를 두레라고 한다. 가벼운 오동나무나 그 밖의 나무로 위는 넓게 퍼지고 밑바닥은 몹시 좁게 네 귀퉁이를 만들어, 네 귀퉁이 위쪽에 줄을 매달고는 양쪽에서 노 젓는 것처럼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물을 뽑는다. 두레박은 바로 이 '두레'와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줄을 달아 맨 것을 두레박이라고 하며, 대나 나무로 긴 자루를 해 단 것을 타래박이라고 한다.」

- 203) 原文의 '三脚'에 대해 언해는 '아리쇠'다. '아리쇠'는 '삼발이'의 옛말이다.
- 204) 原文의 '馬杓'은 '馬杓'가 맞다. 앞의 註 175)번의 설명을 보면 '馬杓'은 '馬杓子'라고도 하고 밥을 담거나 술 또는 물을 풀 때에 쓰는 긴 자루의 목작(木杓)이다. '馬杓'은 '馬勺'라고도 하는데, '馬杓' 또는 '馬勺'에서의 '馬'는 '馬鮪(그리마; 돈벌레)', '馬魷(노래기)', '馬螭(매미)'에서처럼, 큰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馬'字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말의 '왕매미', '왕만두'가 그것일 것이다. 지금도 일부농촌에서는 瓢(표주박; 구기)를 '馬勺(mǎsháo)'라고 한다는 설명도 볼 수 있다. '馬'字 '크다'라는 형용사적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1年) '馬'字條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大: 馬蜂. 馬勺.」그러나 諺解에서는 '馬杓'을 '나모 주계(주계의 옛말)'로 풀이하고 있는데, 구기와 같은 '자루가 긴 나무국자', 즉 국자를 말함으로 보인다.
- 205) 原文의 '箠籬'은 '箠籬'로 보인다. '箠(조)'는 '가리'(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한 가지. 대로 엮어 밑이 없이 통발 비슷하게 만든 것)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箠'와 '箠'의 소리가 같고, 諺解 또한 '조리'로 나타나 있고,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쌀 등을 이는 '조리(箠籬)'로 보았다.
- 206) 原文 '擦床'은 채칼이다. '夾註(앞의 주 177번)'의 '혈갈'은 채칼의 옛말이다. 現代漢語에서도 채칼을 '擦床'이라고 한다.
- 207) 原文의 '簸箕'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키'이다. 버들이나 대를 납작하게 짚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긋하게 엮어 만든다.
- 208) 原文의 '篩子'의 諺解는 '얼명'이다. '얼명'은 '어레미'의 옛말로 '구멍이 굵은 체'를 말함이다. 참고로 곡물이나 그 가공물(가루, 액체)을 크기에 따라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연장으로 체벌의 눈 크기에 따라 '어레미'·'중거리'·'가루체'·'풀체'로 나눈다.
- 209) 原文의 '馬尾羅兒'의 諺解는 '말총체(체벌을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짠 체)'다.
- 210) 原文 '卓子'에 대한 諺解는 '상'이다. '상(床)'에 대한 우리말사전에는 ① '밥상·책상·평상 따위의 통틀어 일컬음. ② 소반(小盤)'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現代漢語詞典에서는 '供人躺在上面睡覺的家具' 등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11) 반(盤)은 소반, 예반, 갠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212) 原文의 '臺盞'은 '臺盞'이 맞다. 諺解에서는 '점잔'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말사전에는 그 설명을 볼 수 없다. 앞의 註 181)번의 설명처럼, 대잔(臺盞)은 '臺淺'이라고 하는데, 받침대가 있는 잔(盞)을 말함이다. 宋·程大昌의 《演繁露·托子》에 「옛날 이(彝)에는 舟(밀받침; 舟, 《周禮·司尊彝》. 司農注: "尊下台, 若今之承盤.")가 있고 卮(爵)에는 點(玷; 爵을 놓기 위한 네모난 받침)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의 '臺盞'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臺盞은 盞托(잔의 받침)에서 비롯되었으며, '托(술잔 등을 올려놓는 받침)'은 唐代 이전에는

별(酒甕)²¹³, 놋쇠주걱(銅杓) 등을 모두 준비를 하게나. 각종 호화롭게 장식된 수레²¹⁴와 광주리 그리고 말구유는 모두가 튼튼한가?

乙某: 모두가 튼튼합니다.

甲某: 자네들은 먼저 이 수레를 문밖으로 끌고 가서 나무와 고사리 그리고 차(茶)를 좀 사 가지고 가시게. 내 자네들에게 당부 하겠네, 그곳에 가면

없었다. (古者彝有舟, 爵有站, 卽今俗稱臺盞之類也。然臺盞亦始於盞托, 托始於唐, 前世無有也。)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잔대(臺盞)을 받치는 집시모양의 그릇을 잔대(臺臺)라고 한다. 아래의 설명은 인터넷에서 찾은 臺臺에 대한 설명이다: 「잔대(臺臺)는 술 잔받침을 말하며 제례 때 술잔을 받쳐 상에 올릴 때 사용하며, 굽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높은 쟁반 형태의 제기이다. 잔대(臺臺)는 평접시와 비슷한 형태이나 2층으로 되어 있고, 굽이 높으며 술잔을 올려놓는 윗면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 술잔은 그 형태가 거의 같으나 제례 때에는 반드시 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213) 原文 '酒甕'에 대한 설명은 앞의 註 182)번에서처럼, 술을 담은 용기로 가족으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는 '酒甕'이 있고, 그 이전에는 '扁提'라는 용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扁提(편제)'는 '扁瓶(편병)'이라고도 하는데, 「자라 모양으로 만든 병. 납작하고 둥근 몸통에 짧은 목이 달려 있다. 여행을 하거나 들에 나갈 때 물이나 술을 담은 데에 쓰인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214) 原文의 '帳房'은 한대에서 별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장막'을 말한다. 《譯語類解》에 '打帳房'과 '穹帳房' 두 어휘에 대해 각각 '장막치다', '몽고장막'으로 諺解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註 184)번의 《漢語大詞典》에서도 '帳篷(천막)', 蒙古包(몽골집; 게르)의 풀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諺解에는 '帳房호室車', 즉 '帳房室車'를 하나의 어휘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夾註】(앞의 註 184)번) 또한 '帳房'과 '室車'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鄉里에서는 '細'字를 '室'字로 읽고, 수레 위에 집을 만들어 누울 수도 있게 한 것을 말한다. 漢人들은 좋은 것을 일컬어 '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좋은 차(茶)를 '細茶'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細車' 또한 수레위에 장막을 쳐서 방을 만드는 것으로, 수레 중에서도 좋은 수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細車'라고 하는 것이다. '帳房細車'라고 이어 불러도 통한다. <質問>에서 말하기를: '예를 들어 부인네들이 타는 수레에 꽃무늬를 조각한 막이에 칠을 하고 꽃술을 장식한 수레를 方言으로 細車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여인들이 타는 막이에 긴 덮개가 있는 수레이다.」《譯語類解》에서는 '室車'에 대해 '집지는 술위'라는 해석을 볼 수 있다. 이에 '室車'는 '햇볕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호화롭게 장식한 지붕이 있는 수레'를 일컫는 것이고, '細車'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古代漢語에 '飾車'라는 어휘를 찾을 수 있다. '飾車'는 古代의 大夫가 타는 가족으로 꾸민 수레를 말한다. 《周禮·考工記·輿人》편에: 「棧車(목재로 꾸민 수레)는 햇볕 등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고, '飾車'는 사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鄭玄의 注: '飾車는 가족으로 꾸민 수레를 말함이고, 大夫 이상의 벼슬만이 가족으로 수레를 꾸밀 수 있다' (古代大夫乘的靛革爲飾的車子. 《周禮·考工記·輿人》: "棧車欲彘, 飾車欲侈." 鄭玄 注: "飾車謂革靛輿也. 大夫以上革靛輿.") '飾車'는 '室車'로 通假할 수 있고, '細車'로도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原文의 '各樣帳房室車'는 '各樣帳房、室車'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잘 꾸며진 각양각색의 수레', '각종 천막과 호화롭게 꾸며진 수레'로 볼 수도 있다고 본다.

각자가 잠을 좀 덜자고 밤에 심경을 써서 보살펴드리게나. 난 천천히 어가(御駕)를 따라서 가겠네.

第46話

拜揖, 趙舍²¹⁵。幾時來了? 昨日恰來²¹⁶到。你船路裏來那²¹⁷, 旱路²¹⁸裏來? 我只²¹⁹船上來了。你說我地面²²⁰裏的田禾如何? 今年那裏慶尙全羅黃海忠清江原各道裏, 十分好田禾。謝天地, 只願的好收着。聽的今年水賊廣²²¹, 是那不是? 我來時節²²², 五六個賊船, 圍着一個西京來的載黃豆的船, 又高麗地面裏來, 載千餘筒²²³布子的大船, 衝將去。後頭聽的, 那賊們把那船上的物件都奪了, 把那船上的人來打殺了。那丁舍你幾時來? 我趕着一百疋馬, 大前日來了。馬們都好將來也麼? 來時節, 到遷民鎮²²⁴口子²²⁵裏, 抽分²²⁶了幾個馬, 到三河縣²²⁷抽分了幾

215) 舍: 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也簡稱“舍”。《救風塵》一白:「自家鄭州人氏, 周同知的孩兒周舍是也。」(劉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1。)

216) 恰來: 方才, 剛才。《劉知遠諸宮調》第二:「恰來解開雲鬢, 用斧截青絲一縷, 付與劉郎。」(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91。)

217) 那: 語氣助詞, 用在選擇問求全面一個選擇項的後面。《元典章·戶部十》:「這言語是實那是虛?」

218) 旱路: 陸路。《水滸全傳》第十一回:「此間要去梁山泊, 雖只數里, 却是水路, 全無旱路。」(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721。)

219) 只: 直, 一直。《水滸傳》第五回:「魯智深離了桃花山, 放開脚步, 從早晨只走到午後。」(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1007。)

220) 地面: 地方, 轄境。元·缺名《鴛鴦被》四折:「如今來到洛陽地面, 張千, 是甚麼人吵鬧, 與我拿將過來。」(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269。)

221) 廣: 多, 衆。元·高文秀《黑旋風》第一折:「泰安神州謊子極多, 哨子極廣, 怎生得一個護臂跟隨將我去方可。」(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89。)

222) 時節: 時候。《七國春秋》卷中:「只見你每來時節, 有一人從後門去了。」(劉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8。)

223) 筒:【夾註】《音義》云: 十疋爲同。

224) 遷民鎮: 即今之“山海關”。《臨榆縣志》載:「明洪武十四年, 魏國公徐達建關設衛, 屯兵五千, 去舊榆關六十里, 因山海而爲關, 謂之山海關。在山與海之間八平方公里的平原地帶, 自古就成爲連繫華北平原與東北平原的交通要道, 素有“兩京鎖鑰無雙地, 萬里長城第一關”之稱。古往近來, 滄海桑田, 山海關區境域的歸屬, 變遷頗仍。商代, 地屬孤竹國。…遼代, 地屬中京道遷州遷民縣。金代, 地屬遷州。元代, 地屬遼陽行省大寧路瑞州遷民鎮。明代, 洪武十四年(1381)置山海衛, 地屬京師永平府。…民國38年(1949)4月21日, 歸屬遼西省, 建山海關市。

個馬，瘦倒的倒了，又不見了三個，只將的八九十個馬來。到通州²²⁸)賣了多一半，到城裏都賣了。草料貴賤²²⁹)？我來時節，黑豆一錢銀子二斗，草一錢銀子十一個家²³⁰)大束²³¹)兒。今年好生賤了。我不會漢兒言語²³²)，又不會做飯，我這吳舍生受²³³)服事²³⁴)我來。這的是²³⁵)：「遠行知馬力，日久見人心。」

【번역】

甲某：趙兄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趙舍：어제 막 도착했습니다.

甲某：趙兄께서는 뱃길로 왔습니까? 아니면 물길로 오셨습니까?

… 1983年5月，屬河北省秦皇島市。」(摘自 百度)【夾註】《音義》云：鎮，安也。凡民聚爲市者曰「鎮」。遷民鎮在遼西瑞州之境。金所置，屬大寧路。

225) 口子：邊界上的山口通道。明·黃元吉《流星馬》第二折：「我奉萬戶的言語，管領着雁門關的山口，恐防有天朝使臣往來。」(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62。)

226) 抽分：從衆多中提出分成，扣頭。宋元明對外國貨物以及國內土貨征收的實物稅。亦稱“抽解”。《元史·世祖紀八》：「商賈市舶物貨已經泉州抽分者，諸處貿易，止令輸稅。」按，宋代與海外互市，根據外國貨物的粗細，定有不同的稅率，通常是十分抽一，也有抽二、三、四等不等。【夾註】《音義》云：十分而取一分，以利官用。今按：中朝設抽分竹木局，如遇客商興販竹木柴炭等項，照例抽分。粗貨十五分中抽二分，細貨十分中抽二分。竹木柴炭，或三分取二，或十分取二，或三分取一。

227) 三河縣：現三河市，位於北京市和天津市之間。以地近洳河、鮑邱河、洵河三水而得名。與北京僅一河之隔。【夾註】在順天府東七十里，以地近七渡、鮑丘、臨洵三水，故名。直隸通州。

228) 通州：現位於北京市東南部，京杭大河河北端。【夾註】在順天府東四十五里，即古潞州，金陵爲通州，取漕運通濟之義。今仍之。直隸順天府。

229) 貴賤：指價值的高低。《官場現形記》八回：「這個是外國定好了來的價錢，貴賤我們做不得主。」

230) 家：或作“價，介，假”。語助詞。用在數量詞後面，表示數額。《元典章·戶部下》：「在上一引鹽兩定家鈔買來。」(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135。)

231) 束：量詞，用於摺在一起的東西。

232) 漢兒言語：漢兒，指中國古代北方異民族對漢人的稱號。《樂府詩集·橫吹曲辭五·折楊柳歌辭》：「我是虜家兒，不解漢兒歌。」明·陳沂《詢芻錄·漢子》：「漢自武帝征伐匈奴，二十餘年。馬畜孕重墮殯罷極，聞漢兵莫不畏者，稱之爲漢兒。」(《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按，漢兒語言，指當時漢人所說的口頭語言。

233) 生受：此作“辛苦、受苦、操勞”。元·無名氏《合同文字》一【油葫蘆】：「量小生有甚人情有甚錢，苦痛也波天！則爲那家私生受了二十年。」(王學奇 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頁982。)

234) 服事：同“服侍”。照料，侍候。《醒世姻緣傳》第十四回：「又分付別的囚婦，教他們好生服事，不許放肆。」(許少峯 編，同前揭書，頁586。)

235) 這的是：真正是，確實這樣。同前註 149)。

趙舍: 난 배만 타고 왔습니다.

甲某: 우리 땅의 곡식들의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趙舍: 올해 경상, 전라, 황해, 충청, 강원 등의 각 도(道)는, 매우 작황이 좋습니다.

甲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저 좋은 수확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듣자니 올해는 해적들의 출몰이 심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趙舍: 제가 떠나 올 때, 대여섯 척의 해적선이 서경(西京)에서 콩을 싣고 오던 배 한 척을 에워쌌고, 또 고려 땅에서 천여 통(筒)의 배가 실려 있는 큰 배를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도적들은 그 배에 실려 있는 물건들을 모두 빼앗고, 그 배의 사람들을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甲某: 그럼 丁兄은 언제 오셨습니까?

丁舍: 저는 말 백 필을 몰고 그르제 왔습니다.

甲某: 말들은 잘 몰고 오셨습니까?

丁舍: 올 때, 遷民鎭²³⁶의 관문(關門)에서 말 몇 필을 세금으로 내고, 三河縣에 이르러서 몇 필의 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여위어서 쓰러질 놈은 쓰러져서 말 세 필을 잃고, 팔구십 필을 가져왔습니다. 通州에서 반을 팔고, 이곳 大都에서 모두 다 팔았습니다.

乙某: 여물은 시세가 어떻습니까?

丁舍: 제가 떠나올 때는, 검은 콩은 두 말(斗)에 銀子 한 돈(一錢)이었고, 짙은 큰 묽은 열 한 덩이에 銀子 한 돈이었으니, 올해는 매우 싼 편입니다.

趙舍: 제가 중국말을 모르고, 밥도 짓지 못해서, 여기 吳兄께서 수고스럽게도 절 보살펴주셨습니다.

乙某: '遠行知馬力, 日久見人心'(먼 길에 말의 힘을 알고, 오래 지내서야 사람의

236) 原文 '遷民鎭'은 지금의 '山海關'을 말함이다. 앞의 註 224)번의 설명에서 보는바와 같이 元代의 '遷民鎭'은 明代에 이르러 '遷民鎭'에 關門이 세워지면서 '山海關'이라고 명명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다. 本文에서 '丁'씨 姓을 가진 장사치는 高麗에서 백 필의 말을 배에 싣고 渤海灣의 秦皇島에 上陸하여 '遷民鎭'에서 現物로 세금(關稅)을 지불하고, '三河縣'을 거쳐 北京 근처의 '通州'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改修本인 《朴通事新釋諺解》에서 '遷民鎭'대신 '山海關'으로 바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參考文獻〉

原典類

-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3年。
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年。
錢南揚著，《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臺灣：華正書局，1990年。
王學奇等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年。
李小強、王小忠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堅、蔣紹愚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詞典類

-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____，《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____，《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____，《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____，《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堅、江藍生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____，《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許少峯，《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龍潛庵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勛、王東明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呂叔湘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____，《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王鏞、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王鏞,《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_____,《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_____,《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_____,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藍立冀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韻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卜鍵 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史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譚其驥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謝紀鋒 編纂,《虛詞詰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廖珣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陸澹安 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著書類

- 呂叔湘著,江藍生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胡安竹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香坂順一著,江藍生 白維國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 _____，植田均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天津出版社，1992年。
-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 王雲路 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 房玉清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 呂叔湘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 _____，《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 日·青山定雄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年。
-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 _____，《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年。
- 李泰洙，《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年。
- 傅雨賢 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年。
-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年。
- 郭作飛，《張協狀元詞彙研究》，巴蜀書社，2008年。
- 張美蘭，《近代漢語論稿》，江西教育出版社，2004年。
- 陳秀蘭，《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年。
- 程湘清 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年。
- 李嵩興 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9年。
- 장숙영 옮김, 《번역박통사 (상) 주석》，한국문화사, 2008年。

論文

- 楊聯陞，〈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東方學志》，1955年(臺灣)。
- 慎鐮權，〈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中國語文學》第48輯，2006年。
- 王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1)〉，《中國研究》第37卷，2006年。
- 최재영·정윤철，〈朴通事諺解譯註(2)〉，《中國語文論譯叢刊》18輯，2006年。
- 王霞·유재원·최재영，〈朴通事諺解譯註(3)〉，《中國研究》第40卷，2007年。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4)>, 《中國研究》第42卷, 2008年.
- 王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第23輯, 2008年.
-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第36輯, 2008年.
- _____,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第22輯, 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第39輯, 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第25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第41輯, 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43輯, 2009.
- _____,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44輯, 2010.
- _____,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叢》27輯, 2010.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0輯, 2010.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11輯, 2011.
-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47輯, 2010.
-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48輯, 2011.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26輯, 2006年.
- 맹주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학연구》42집.
- 맹주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鄭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鐘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2008年 第1期, 2008年.

〈中文提要〉

《老乞大》近二萬字，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用對話的形式，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個方面，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遊藝、景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從史學看，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原著者的生平時代，雖不可詳考，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仍可大致認定此二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本子，韓國學者稱之為《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翻譯朴通事》(上：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為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翻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為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為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6. 27.	2013. 8. 5.	2013. 8. 18.	2013. 8. 22.	2013. 8. 31.